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는 가위.



누르면 자동으로 야채에 묻은 물을 털어내는 원심력 탈수기.



노인들을 위한 가볍고, 잡기 편한 손잡이.



노인들이 키 높이에 맞춰 앉을 수 있는 욕실 붙박이 의자.

노인·장애인 위한 ‘배려의 디자인’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더할 나위 없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1998년작)를 보면, 죽음을 앞둔 주인공 한석규가 아버지에게 TV 리모컨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리모컨 사용법을 배우지 못해 아들과 다투게 된다. 가전·생활용품의 디자인과 사용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선보이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 프로젝트 전시 '살림'이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예쁘고, 세련된 것만을 강조하는 디자인에 작은 변화를 줘 약자 계층이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전시실에 마련된 '살림'전은 국내외 유니버설 디자인 업체 '높낮이' '욕소'와 10여명의 디자이너들이 출품한 10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가 '더할 나위 없



2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노인·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는 작품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북 디자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작품 속에는 다양한 '휴먼 스

또 조세미씨의 'L을 위한 손가락 보조기'는 작가가 일을 통해 알게 된 'L씨'의 손가락이 굵어 휠체어를 탈 수 없게 되자, 멋진 반지 형태의 손가락 보조기를 만들어 준 작품이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UD(유니버설 디자인의 약자)스쿨'은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편한 디자인적 요소를 직접 찾아내는 교육이다. 눈을 가린 친구가 포장된 칫솔을 뜯어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대포장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직접 느껴보는 행사이다. 또 두꺼운 장갑을 끼고, 과자를 먹으면서 손이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문제점도 체험하게 된다.

'살림'전을 기획한 홍정구 큐레이터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생활을 디자인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현대 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살림'전

약자 위한 100여 점 신선한 감동

는'인 반면, '살림'전은 우리 삶 속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을 담아 '더할 것. 너무 많은'을 타이틀로 삼았다.

장애인의 키 높이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지는 싱크대,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이 쥐기 쉬운 가위와 젓가락, 잘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에 오목하게 패인 줄이 있는 컵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또 디자인업체 '다지인랩'이 선보인 '점자 그림책'은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점자로 느낄 수 있게

토리'가 묻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숙현씨의 '어머니의 독서시간'은 돋보기를 4개의 줄에 매달아 책을 보는 어머니가 쉽게 책장을 넘기게 한 작품이다.

이광선씨의 '노모를 위한 목걸이'는 연락처와 병력 등의 정보를 적은 쪽지를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목걸이 안에 넣은 작품이다.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했던 '치매 목걸이'에 가족의 사랑을 담아 멋진 금속공예로 승화시켰다.

“광주와 문화교류 확대 기대”

■ 홋카이도문화재단 이소다 이사장 인터뷰

평화연극제 '이 길은...' 30일 광주 무대에



“홋카이도는 이제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와 환경으로 눈을 돌려 도시 발전의 모델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와의 교류는 저희에게 의미가 있어, 연극부터 시작된 교류가 탄탄히 자리를 잡아 교류 분야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29일 광주연극협회 주최로 열리고 있는 2009평화연극제 참가차 광주를 찾은 이소다 켄이치(65)(재)홋카이도문화재단 이사장은 “홋카이도에 광주는 잘 알려진 도시가 아니지만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홋카이도도 광주가 진행하는 아시아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다 이사장은 특히 “이 프로젝트가 경제가 아닌, '문화로도 생계가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확장하는 게 인상적”이라며 “문화정책이 삶에서 현실화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는 시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문화 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홋카이도

(인구 570만명) 도청 출연으로 1994년 출범한 홋카이도문화재단은 기금 규모가 1천300억원에 이르며 문화예술인과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연극협회와 홋카이도 문화재단의 교류는 2007년 삿포로 극단 'TPS'가 평화연극제에 참여하면서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푸른 연극마을'이 삿포로에서 '아랑별곡'을 공연했으며 이번 평화연극제에서는 '호쿠게이'가 베즈야쿠작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30일 오후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을 무대에 올린다. 약 150개 극단이 활동중인 홋카이도는 여타 장르에 비해 연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시다.

“이번 공연은 일본 작가의 희곡을 일본과 한국의 연극인들이 각기 다른 버전으로 한 무대에 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인류 공통의 테마를 양국 연극인들이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홋카이도 도청 문화과장·부지사로 재직하며 재단 기금 마련 등에 적극 관여했던 이소다 이사장은 한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홋카이도 역시 문화관련 예산이 적지만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홋카이도의 가장 큰 도시인 삿포로(인구 190만명)에서는 많은 공연이 열리고 있지만 주변의 작은 도시는 그런 혜택을 받지 어려워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북해도무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인들을 불러 작품을 만들고 지방을 돌면서 공연하는 게 대표작입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훈씨 '내가 걸은 남도 갯길' 출간

40여 년 언론인 생활 갈무리

광주일보 자매지인 '월간 여행'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이훈(66)씨가 영광 계마항에서 광양 섬진강하구까지 전남서남해안 1930리(771km)를 걸으며 보고 느낀 것, 갯길에서 만난 사람과 그곳에 고인 역사를 담은 답사 여행기 '내가 걸은 남도 갯길'(언터 펄)을 펴냈다.

40여 년 기자생활을 마감하고 '그 세월이 남긴, 그 세월에 쌓인 공과와 빚'처럼 영인 허물, 그리고 가식의 언어를,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하는 생각으로 나선 전남서남해안 갯길 답사 여행. 걸어보니 그곳



은 요람처럼 아늑하고 때 한 톨 묻지 않는 거룩한 땅이었다.

책은 이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평균 1박 2일씩 25일간을 걸으면서 보고 느낀 갯길과 표구, 사람이 이야기이다.

조깅으로 불야성 이루던 조기해안(영광해안), 뽕 뽕까지 고소한 세계적인 습지(함평만), 황토 땅에 물려오는 변화의 물결(무안청계해안), 절망의 땅끝에서 희망의 출발지(해남

동해안)에 이어 '김발이' '금발'된 대변혁의 해안(광양만)등 저자가 전남 서남해안을 걸으면서 느낀 내용들을 고스란히 기록했다.

이씨는 “내가 걸은 남도 갯길은 손수가 흐르는 신성한 길이었다”며 “해안에 흐르는 손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절저한 자료 조사를 통한 지형지물의 설명, 자세한 노정과 구간별 거리를 표시, 지도와 함께 걸었던 사진 등은 저자의 기자로서 자세가 잘 배어나 있다.

이씨는 광주출생으로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8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06년 7월 무등일보 편집인·주필로 현직을 마감하고 집필활동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재규경찰학원의
졸업 성취는 계속된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070-7433-0594

2010년 대비 9급 공무원

개강 : 10월 6일

무등고시학원

개강! Start! 10월 1일

중강 IT 직업전문학교